歌辭의 문학교과지도 視點

- 賞春曲, 思美人曲, 愚夫歌를 중심으로-

孫 五 圭*

목 차

Ⅰ. 序 論
Ⅱ. 歌辭의 장르 문제
Ⅲ. 美的 態度와 삶
Ⅳ. 社會的 背景과 현실
Ⅴ. 結 論

Ⅰ. 序 論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위의 세 작품은 문학사적 의의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 정극인의 〈賞春曲〉은 조선전기 양반 正格가사의 효시이며, 송강 정철의 〈思美人曲〉은 여인이 話者로 등장하여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 문학성 또한 뛰어나다. 〈愚夫歌〉는 조선조 후기 여성들의 자기반성과 자각에 의한 남성관과 현실에 대한 인식변화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고전교육은 전통문화 계승과 창달이라는 당위성 외에도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동일성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고전교육에 있어 현장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회의를 가지게 한다. 그 중에서도 고전지도의 패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그 지도의 방향이 산발적이며 체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인상비평이나 어귀해석 정도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다른 큰 어려움은 학생들이 고전작품의 서정과 특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제주대 교수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입시의 출제비중이나 시대적 간격에 의하여 학생들이 거리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좀더 효과적인 지도의 방법과 현대문학과의 연장선상에서 항상 학생들이 현실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지나친 이론위주의 지도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즉 가장 복잡하고 문제시되는 가사의 장르는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도 하나의 정립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어휘의 의미도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너무 상세하고도 넓게 소개하고 암기하게 하기에 앞서 우선 작품에 표현된 서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지도에 있어 문제시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어떠한 방향에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그 지도의 관점과 視點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歌辭의 장르 문제

가사는 어느 장르에 속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고전시가 연구자에 따라 그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사의 장르를 지도하는 까닭은 가사를 어떤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문학의 세계와 특징을 어떤 면에서 강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가사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이론적이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해가 옳으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가사가 갖는 특징과 특성을 이해시키는 것을 지도의 목표로 설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가사의 장르 문제는 다음의 네가지(수필, 서정, 서사, 교술)로 요약하여 말할 수가 있다.

첫째, 가사는 수필인가?

이 견해는 조윤제가 '가사는 文筆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최초로 제기되었었다. 문필은 동양적 문학갈래의 입장에서 구분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고전문학은 詩와 書로 나뉘어졌다. 시는 운문으로서의 서정이며, 서는 산문으로서 서사에 속한다. 시경, 서경이 이러한 분류의 예가 된다. 그 뒤 조선조 시대에 와서 소설이 등장함

으로써 서사의 대표적 장르로 지목되고 분류되었다. 그러나 가사는 서정과 서사의 특징을 두루 갖추었으면서도 어느 하나에만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쪽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문필이라는 장르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필이란 매우 애매모호한 영역이다. 과연 歌辭가 문필에 속하느냐 하는 물음에 반드시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다. 문필의 현대적 개념은 수필이다. 이 수필에는 일기, 기행문, 감상문 등등 많은 종류의 글들이 포함된다. 우리 고전문학에서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종류의 글들이 많이 산출되었으므로 크게는 수필의 영역에 포함시켰으며, 문필이란 용어로 수필이란 용어를 대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분명 가사는 이런 수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수필의 영역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상이한 특징들이 많다. 그래서 조윤제는 가사란 우리 고유의 문학장르이며 서정과 서사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역사장르로서 가사라는 장르를 설정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던 것이다.

고등학교 문학수업의 실제에 있어서는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분명하게 말하면서 수필장르와 가사문학의 공통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현대문학에서 말하는 문학장르 상에서 분류한다면 가사는 수필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춘곡〉, 〈사미인곡〉, 〈우부가〉를 살펴 볼 때도 그 형식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적 제약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수필이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라는 분류에서 볼 때 위의 세 작품과 같은 가사는 작가에 따라 그 형식상의 변화가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 외 많은 기행가사와 일기 형식의 가사 등이 있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둘째, 가사는 서정인가?

즉 가사는 시의 일종인가. 정형시는 아니므로 그렇다면 자유시인가. 가사는 시가 가지는 특성 중에서 서정적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역시 분명한 시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서정장르는 인간의 감정을 중요한 요소로 묘사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시가 가지는 특성들을 가사와 비교해 볼 때, 가사는 우선 그 형식이 너무나 자유스러우면서도 길다. 그리고 조선조 초기에는 서정적인 가사가 먼저 산출되었으나 후기로 넘어오면서 서사적 요소를 가진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사가 서정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역시 가사가 서사이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가사가

서정장르인가 서사장르인가 하는 그 귀속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우선 역사장르로서 가사가 산출된 시기를 나누고, 조선 전기는 서정적 가사가 많이 산출되었고 후기는 서사적 가사 작품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문학사적 현상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춘곡〉으로 대표되는 前期 가사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여러 요소들을 열거하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각자가 느낀 감정에 대하여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여 가사의 서정적 특징을 발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수업을 주로 강의식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은 보편화된 개념들을 정리하고 수용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 스스로의 의견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보편성을 검증해보는 감상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가 가지고 있는 서정적 장르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선은 향가나 고려가요 그리고 시조 작품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향가의 서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고려가요에서 느끼는 서정과는 어떤 특성을 가지며 또한 형식적 특성 등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가사는 서사인가?

서사의 특징은 사건전개라고 말할 수가 있다. 어떤 경험한 일이나 상상되는 사건을 일정한 시간의 전개에 따라 차례대로 이야기해 나가는 형식적 구성이 서사의 특징이다. 따라서 일정한 공간과 시간이 있고 어떤 인물이 반드시 등장하여 그 인물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추적하여 서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떤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일정한 플롯의 구성이 서사장르의 특징이다. 즉 플롯은 사건들의 전체적인 연속이다. 인물들은 동기를 실현하려고 행동하나, 한 번의 행동으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또 다른 행동을 계속한다. 이러한 행동의 집합이 한 단위를 이루는 것이 사건이다.[1] 따라서 플롯이란 이러한 인물의 행동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전체의 짜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의 서사장르적 성격을 지도할 때는 이러한 서사장르의 개념규정을 통한 특성을 설명하고 구체적 작품 속에서 그러한 여러 요소를 찾아내어 발표하고 상호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우

1) 이대규, 『국어과 교육의 과정』, 한글과컴퓨터, 1994, p.224.

리의 가사작품에는 완전한 플롯에 의한 서사작품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사적 성격을 가진 가사작품이라도 주로 일정한 목적을 가진 여행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서술해 나가는 정도이지 플롯의 개념에 의하여 치밀하게 구성된 전체적 짜임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 즉 〈일동장유가〉나 〈연행가〉 〈북천가〉 등의 기행가사 내지는 유배가사에 등장하는 서사적 성격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가사가 서사장르에 속한다는 논리를 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문학수업시간에서 실제적으로 가사를 놓고 서사장르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다. 단지 고전가사작품이 가지는 특징으로서의 서사적 성격을 발견하고 가사작품의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는 정도를 수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넷째, 가사는 교술인가?

'가사가 교술장르이다' 라는 학설은 가장 최근에 나온 조동일 교수의 의견이다. 이 의견은 우선 가사를 이론장르의 면에서 정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학설을 주장한 조동일 교수의 교술장르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한림별곡〉도 교술장르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장르의 개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 작품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르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염려도 없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고전문학수업에서 〈한림별곡〉은 주로 고려가요 그 중에서도 시가장르라고 지도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며 경향이다. 그런데 갑자기 교술장르의 이론을 철저히 하려고 광범위한 이론위주의 설명을 전개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해되지 않는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반드시 구체적 작품을 두고 그 작품을 지도할 때에는 이론전개를 위한 교안 작성의 범위를 한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 교술성이 강한 작품으로는, 최초의 가사작품이라는 나옹화상의 〈서왕가〉와 조선후기의 동학가사, 의병가사,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가사작품들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가사의 교술장르적 성격을 지도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우선 이론장르로서의 입장과 역사장르로서의 상반되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 장르구분의 근거와 관점을 확실하게 하여야만 할 것이다. 동시에 구체적 작품을 예로 들고 시대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가사의 성격과 특성을 잘 이해시켜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가사는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장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장르적인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Ⅲ. 美的 態度와 삶

〈상춘곡〉의 교수-학습활동의 3항에 보면 미적 태도라는 항목에

(1) 작품 속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한 마디로 요약해 보자.

(2)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떤 미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다. 이럴 경우의 미적 태도는 〈상춘곡〉에서 알 수 있는 화자 즉 정극인의 삶이 미의식에 의한 행동이며 자신의 삶을 미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행동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의식은 의도적 행동을 행하게 하는 정신작용이며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성을 가지게 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에게 美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체로 그 개념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미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더구나 개인적인 미의 기준을 스스로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학생은 아마도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미라는 말은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그 개념을 파악하고 작품에서 그 근거와 구체성을 찾아내기에는 너무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미의 개념에 대하여 쉽고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역시 교사들에게도 미라는 말은 너무 어렵고 생소하다. 특히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으나 실제 현실생활과 구체적 가사 작품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는 미의 개념에 대하여 동양미학적 입장에서 정리하고 그 전통적 개념과 구체적 고전시가 작품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서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라는 개념 특히 고전시가의 미의식이라는 말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수업시간에 지도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고전시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화자의 삶 중에서 어떤 면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발견해 내어야만 한다. 〈상춘곡〉에서 정극인은 자신의 생애를 '풍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풍류를 정극인은 가치있는 삶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풍류를 정극인은 '산수구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극인은 '산수구경'의 삶을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미적 태도는 곧바로 '산수구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극인의 의식은 자신의 삶을 '산수구경'을 잘 할 수 있고 또 왜 '산수구경'을 가치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그 근거를 스스로 알고 싶어한다. 곧 정극인은 '산수구경'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방향과 지향성에 대한 계속성의 이유와 가치를 자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때 미라는 개념은 '가치로운 것'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정극인이 '산수구경'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는 어떠한 생활들을 버렸으며 또 그는 '산수구경'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자 하였는가. 즉 '산수구경'의 내용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는 우선 '紅塵'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삶을 버렸다. 즉 세속적 삶은 가치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신의 기준과 의지에 어긋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극인은 사대부이다. 사대부는 과거를 통하여 관리로서 국가경영에 참여하고 임금의 정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정극인이 '산수구경'을 위해서 '紅塵'을 떠났다는 것은 관리로서의 벼슬을 버렸다는 사실이외에도 관리로서의 삶을 가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관리로서 높은 벼슬을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높은 벼슬에 있는 관리를 누구나 부러워한다. 그리고 세상사람들은 그가 훌륭하고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세상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대단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극인은 관리로서 벼슬하는 삶을 가치롭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극인의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정신적인 기준 즉 미의식은 세속의 기준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또한 세속에 대한 욕망을 버렸다는 의미에서 무욕의 정신적인 삶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극인의 미의식은 첫째로, 세속적 벼슬을 버린 무욕의 정신생활로서의 산수구경을 지향하는 삶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 수업시간에는 〈상춘곡〉에서 이런 무욕의 정신생활이 잘 형상화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그의 집은 산에서 자라는 띠풀로 지붕을 이은 조그마한 집이다(數間茅屋). 이 집은 세속을 떠나 산림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의 인품과 정신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위 환경

은 문명의 흔적이 별로 없으며 자연적인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도회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욕망과 연결될 환경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碧溪水 앞픠두고 松竹鬱鬱裏예 風月主人 되여셔라).

둘째로, 자연을 사랑하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회로 상징되는 인간의 온갖 문명과 인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 자연과의 조화는 상춘곡에서 '物我一體'라고 표현되어 있다. 物이란 자연을 말하며 我란 바로 정극인을 말한다. 그러면 '物我一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원래 物我를 구분하는 것은 二元的 구분이다. 즉 物은 산수경물이며 이의 집합체는 자연 혹은 대자연을 말한다.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이며 대자연의 이법에 의하여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본래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대자연으로부터 구분해내고 그리고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의 이법을 벗어나 경쟁하고 모함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사랑하면서 자연의 이법을 사색하고 그 자연의 이법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세가 곧 본래적인 본성을 회복하는 출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삶은 문명의식의 탈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즐거움을 창조해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전형으로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낙천적이고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얼른 생각하기에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생활은 소외로부터 오는 고독감이나 절망의 정서들에 휩싸일 수가 있으며 그 결과 염세적이며 현실도피적인 경향으로 빠져들기가 쉽다. 그러나 〈상춘곡〉에 나타나 있는 산수생활은 대단히 自樂的이며 안정적이고 편안하며 한가로운 삶의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산수를 구경하면서 산나물을 뜯고(採山), 낚시도 하고(釣水), 술 한잔에 즐거워서 기뻐하고 만족한다(又 괴여 닉은 술을 …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이러한 삶의 모습은 벼슬하는 관리로서의 삶이 아니며 경쟁에서 승리한 즐거움은 더욱 아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삶이며 제한이 없는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인 것이다. 특히 이런 삶의 모습에서 대단히 가난한 생활이지만 결핍으로부터의 고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가난

함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먼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함을 〈상춘곡〉에서 정극인은 '簞瓢陋巷에 …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ᄒᆞᆫ돌 엇지ᄒᆞ리' 라고 노래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사미인곡〉에서 알 수 있는 미의식을 말해보기로 하겠다. 이 때의 미의식도 화자가 무엇을 가장 가치있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작품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곧 그 해답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우선 '작중화자가 여자이다' 라는 것과, 화자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남자' 라는 사실, 그리고 화자의 남자는 화자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사랑하지 않는 듯하며 혹 사랑하던 마음이 변한지도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로 그 사랑을 화자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설명하여야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 사랑에 변함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삶의 의미는 오직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남녀간에 있어 이러한 사랑의 윤리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극하고 지순하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화자의 사랑은 대단히 모범적이며 칭찬받아야만 할 사랑의 감정인 것이다. 바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혹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미인곡〉의 배경을 살펴볼 때, 화자는 정철 자신이며 남자는 임금이라는 현실적 의미를 발견하고, 임금의 은혜에 연연하지 않고 한결같이 임금을 사랑하여 충성을 다하는 신하의 모습에서 인간적 신의의 극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부가〉에서 알 수 있는 미의식을 알아 보자.

〈우부가〉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삶의 태도는 대단히 현실적인 삶을 중요시하며 자각적이며 못난 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두드러짐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여성의 삶의 태도는 조선 후기에 와서 발견되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로서 여성의 현실인식과 자각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는 근대성의 발휘라고 할 수가 있다. 종전처럼 자기의식에 대한 자각없이 남성에 종속적인 삶을 여성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던 사회적 경향이 여성의 자기인식과 자각이라는 새로운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근대적 여성상이 등장하게 되고 여성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기준과 인식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근대적 새로운 여성상이 표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류탁일 교수는 '〈우부가〉, 〈용부가〉 같은 가사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윤리를 파괴하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은 〈개똥이〉, 〈꼼생원〉, 〈꽹생원〉, 그리고 〈빵덕어미〉와 같은 부류임이 드러났다. 이들 가사들은 교훈적 덕목을 열거하여 가르치는 하향적 교화가 아니라 현실의 치부를 들추어냄으로써 자성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2]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춘곡〉, 〈사미인곡〉, 〈우부가〉 이 세 작품은 가사문학의 발전과 전개에 있어 각각의 한 시기를 대표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문학시간에 歌辭를 지도함에 있어서 개별작품을 분석하고 그 문학성을 음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의 배정이나 학습진도를 고려할 때 위의 세 작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전체적인 흐름과 특성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社會的 背景과 현실

歌辭가 생성된 배경을 논한다는 것은 가사의 발생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배경은 가사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사회적 현실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곧 모방론적인 입장에서 역사사회학적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는 방향의 수업전개를 말한다. 그런데 왜 이러한 수업전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고전시가교육의 목적과 연관되는 것이다. 문학이란 정신사의 일종이며 그 문학작품이 생성하게 된 당시 사회의 문화환경과 문화의식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감상과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선인들의 정신적 삶과 문화적 환경 그리고 당시 사회의 문화의식에 접근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조선조에 들어와 가사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훈민정음이란 우리의 글이 문학어로 세련된 표현을 갖추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우선 가사의 장르 주담당층은 사대부들인데, 이들의 문자생활은 주로 한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라는 순수국문학작품이 이들의 손에 의하여 세련된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훈민정음에 대한 새

2) 류탁일, "조선후기 가사의 현실인식",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p.435.

로운 인식과 문학어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가사는 시조와 함께 발전하고 가사작가이면서 시조작가인 사대부들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순수국문학이 대단히 발전하고 향유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만 할 것이다.

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엘리트 계층으로 조선조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끼친 문화사적 의의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성리학은 우선 자연을 감상함에 있어서도 실재로 존재하는 자연의 경물과 생활 환경의 자연을 감상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더구나 성리학은 그러한 자연의 현상이 도래하게 된 필연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그 근원을 탐구하는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학문으로 자연적으로 인생의 현상적 삶의 필연성과 당위성에 대하여서도 사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한 인생의 사색은 자아라는 존재의 삶을 객관화하여 반성하는 자기인식에 바탕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현실위주의 삶의 자세이며 철학적이고도 객관중심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다. 곧 자신을 학문의 중심에 놓고 자기자신을 그러한 학문으로부터 깨달은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가치의 실현은 학문적으로는 진리의 현실적 적용이며 윤리적으로는 당위로서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윤리적 규범을 중요시하는 선비들의 삶이라는 전형성을 형성하여 하나의 전통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명예나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연에 묻혀 사는 산수생활을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상시하였으니, 선비들의 시에 도연명이나 嚴子陵 등을 흠모하고 그들의 시문학을 암송하였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산수생활을 '風流'라고 표현하였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곧 〈상춘곡〉에서 정극인도 '風流'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상춘곡〉은 위에서 언급한 조선조 사대부내지는 선비들의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조선조 양반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시가를 지도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위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사나 시조에서 자연을 노래한 시가들은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 참된 인간완성의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실현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대단히 현실위주의 실천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의 고전문학수업경향은 대부분 自然詩歌를 현실도피적인 삶을 노래한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소극적인 삶의 비현실주의적인 시가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새롭게 수정되어 우리 선인들의 자연에 대한 미의식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인생의 즐거움과 참됨을 느끼고자 하는 지식인의 당대적 삶의 자세와 이상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善'은 사회적으로는 '義'라고 할 수가 있으며 벼슬하는 관리에게 있어서는 '忠'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 충이라는 개념은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의 변함없는 사랑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녀간에는 아마도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미인곡〉에서는 바로 이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주제로 노래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충을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녀간의 사랑을 통하여 임금과 신하간의 충을 비유하고 있는 문학적 장치가 더욱 정서적 공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충과 사랑의 아름다움은 불변의 맹세에 있는 것이고, 조선조 사림들은 이러한 충과 사랑의 불변을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등학교 문학수업을 통하여 우리의 고유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지도하고 또한 충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문학사적으로 〈사미인곡〉은 이와 같은 면에서 〈-미인곡〉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하나의 문학적 전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충과 사랑의 개념은 당시 조선조 사회의 문화의식을 반영한 것이니 즉 유교적 예사상의 반영이었다고 하겠다. 이런 예사상의 규범과 가치는 후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조선조 후기 특히 개화기가 가까워 오면서 이런 예사상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으니 곧 실학의 등장을 의미한다. 실학은 종전의 개념적이고 규범적인 가치가 새로운 가치로 전환되는 근원이며 조선조 사회에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인간자체의 욕망과 인간성의 인정을 시도하는 근대적 사회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상과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 〈우부가〉이다. 특히 근대적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이 여성의 자각과 사회적 인식인데, 〈우부가〉에서 이러한 점이 잘 나타

나 있는 것이다. 〈우부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반성을 초래하는 시발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남성에 대한 비판과 가정에 있어서 남녀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경향의 의식은 개화기에 들어와서 더욱 일반대중에게 유포되고 여성계몽의 중심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적 운동의 초기적인 모습과 원인을 노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에 들어와 가사는 대중을 위한 장르처럼 널리 창작되고 불리워졌는데, 이것은 가사 장르가 가진 개방성과 창작의 용이성 등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부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할 점은 조선조 여성문학에 대해서이다. 조선조 시대에 영남지방 사대부계층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은 가사가 창작되고 유포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嶺南大家內房歌辭', 혹은 '閨房歌辭'라고 부른다. 이 규방가사는 流動文學[3]이며 매우 다양한 내용의 작품이 많이 생산되었다. 우리가 흔히 조선조 사회에서는 여성이 소외되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문학에서 제외된 폐쇄적 사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방가사의 창작과 유통과정 그리고 가사가 불리워지던 장소나 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 고등학생들의 위와 같은 선입견은 불식될 것이며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의 한 흐름을 파악하는 의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V. 結 論

歌辭는 우리 문학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類型의 문학이며, 시조와 더불어 조선조를 대표하는 문학이다. 따라서 서양의 장르이론이나 미학이론을 적용해 보면 그 지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복합장르로서 역사성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업에 있어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염려마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지도는 작품위주로 그 감상에 초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그외 가사의 배경사상이나 사회적 환경에 관한 이해 등도 중요한 지도의 한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고등학교 문학수업에서 가사를 가르칠

3) 이동영, 『가사문학논고』, 부산대출판부, 1987, p.121.

때 실제적으로 부딪치는 장르와 미의식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문화의식에 대하여 그 지도의 視點을 살펴 보았다. 그 이유는 가사지도의 목적과 수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우선 교사의 입장에서 고려해야만 할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지도의 실제와 효과적 지도를 위한 수업설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의 고전은 역사사회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전수하고 암기하는 데 편중된 경향이 없지 않다. 물론 이런 시각도 대단히 중요한 고전교육의 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좀더 새롭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현대문학과의 연관선상에서 그 전통적 맥락을 연결시켜 가면서 지도해야만 현실감 있는 감상과 고전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지도에 있어 우선은 전체적인 작품의 짜임과 현대성과 비교해 보아 독특한 표현들 그리고 그 서정성의 전통성 등을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향으로 지도의 주안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